

갤럽, 23대 총선 야당 승리론 우세

야당 47%...여당보다 13%p 높아
수도권·충청권 '전제론' 압도적
李大統領-민주당 지지 소폭 반등
무당층 29% 중도층 민주당 우세

한국갤럽 조사에서 다음 23대 총선에서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7%,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내년 4월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7%로 나타났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 성향 진보층 71%는 여당 승리, 국민의힘 지지층의 89%, 보수층의 78%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여당 승리(16%)보다 야당 승리(49%)로 기울고, 중도층(36%:44%)은 양론 격차가 크지 않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39%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석 이전 지속되던 대통령 직무 평가 내림세가 10월 들어 일단 멈췄다. 직

무 부정률은 여전히 50%를 웃돌지만,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를 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74%)·성향 진보층(65%)에서,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86%)·보수층(77%)에 많다. 중도층(공정 40%:부정 51%),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24%:57%)에서도 부정론이 우세하다.

성별로 보면 여성(41%:48%), 40대(53%:42%)와 50대(45%:50%)에서는 긍·부정 격차가 크지 않고, 남성

(36%:57%)과 이외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자가 더 많다.

이와함께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다. 현 정부 출범 후 양대 정당 격차 10%포인트 이내 기록은 지난 9월 첫째·둘째 주(→ 제674호, 제675호), 그리고 지난주에 이은 네 번째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더불어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1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록기자

전북 선수단 1554명 전국체전 출격 이원택 지사, 전북 선수단 격려

제주서 선수 1203명·임원 351명 참가
배드민턴·사이클·체조 사전 금메달
“올림픽 유치 향한 저력 보여주길”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북 선수단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최근 아시안게임 등 국제무대에서 전북 출신 및 소속 선수들이 보여준 뛰어난 기량과 열정은 도민들에게 큰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했다”며 “그 저력을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응원했다.

또 “전북은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경쟁 도시로서 세계를 향해 전북 체육의 역량과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전국체전이 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열린다. 전북에서는 49개 종목에 선수 1,203명과 임원 351명 등 총 1,554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개막에 앞서 열린 사전경기에서 전북 선수단은 배드민턴과 사이클, 체조 종목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획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원택 도지사는 “체육은 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자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 확충과 선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선수단이 대회 기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숙소·교통·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와 협력해 도민의 관심과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북 금융거점 합류

지난 16일 열린 미래에셋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은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고정삼 경제부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전통문화·첨단기술 융합 ‘미래문화축제 팔복’ 성료

공연·전시·시민 참여 콘텐츠 선배
디지털 미디어 융복합 공연 호응
아트애펙트 공모 선정작 9점 전시
주요 전시 내달 22일까지 연장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에서 펼쳐진 ‘2026 미래문화축제 팔복’이 관람객에게 전통과 기술이 만들어진 문화적 감동을 선사하며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사업의 일환으로 ‘2026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개

최했다.

‘상상 과부하’를 부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발·창작해 온 미래문화 콘텐츠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주의 전통문화가 첨단 기술과 만나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자리로 꾸며졌다.

축제 기간 팔복예술공장 곳곳에서는 전통과 기술이 결합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져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전통연희와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 ‘미래당산: 이팝모리’

는 독창적인 연출과 인터랙티브 시스템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본 공연은 축제 이후에도 오는 11월 7~8일 이틀간 매일 2회씩 총 4회 더 만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 기반 아트애펙트 프로젝트 공모전 선정작 9점을 선보인 ‘팔복 리부트’ 전시와 팔복예술공장의 4면 LED 몰입 공간 ‘디큐브’에서 진행된 실감미디어 전시 ‘실감지향’도 전통문화의 교육 가치와 첨단 미디어 기술의 결합을 완성도 높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머시브 퍼포먼스 ‘도깨비 놀음: PLAY’ 등 관객 참여형 콘텐츠도 선보였다.

/장정철 기자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축제는 전주가 쌓아온 미래문화 콘텐츠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통문화가 현대 기술과 만나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민들과 함께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축제 기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한편, 본 축제 종료 이후에도 △팔복 리부트 △실감지향 △본질 등 이번 미래문화축제의 주요 전시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2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전주시, 농식품기업 브랜드 경쟁력 키운다

지역 농식품기업 교육·간담회 열어
제품 브랜딩·마케팅 전략 역량 강화

전주시가 지역 내 농식품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소통에 나섰다.

시는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함께 지난 16일 전주 라한호텔 기자회견에서 전주시 지역 농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 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맞춤형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시 지역 24개 농식품 기업 관계자와 시·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주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3D 식품프린팅) 구축사업 설명 △농식품기업 역량강화 교육 △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 사업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도전하고 있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3D 식품프린팅) 구축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업 참여 방안을 소개하며, 전주시 지역 농식품

기업의 3D식품프린팅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사업 확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공무원과 동부한농 등에서 상품기획과 마케팅을 총괄해 온 김세운 디벨롭어스(주) 수석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서 ‘제품화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주제로 강의했다.

마지막으로 시와 연구원은 농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지막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공무원과 동부한농 등에서 상품기획과 마케팅을 총괄해 온 김세운 디벨롭어스(주) 수석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서 ‘제품화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주제로 강의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 기업들이 시장 환경 분석과 브랜드 전략 수립, 유통 판로 확보 등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익혀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의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엽니다.

전북타임스신문

JEONBUK TIMES

구독신청 063-282-9601

이메일 www.jeonbuktimes.co.kr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론지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에 전주사무소 개소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 소통 강화
글로벌 운용사 진출로 생태계 확장
지역 금융기관 간 연계 기반 확대
도, 민간 금융기관 정착 지원

전북도는 지난 16일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는 글로벌 운용 역량을 갖춘

주요 자산운용사가 전북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금융기관 간 연계 기반을 넓히고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는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준용·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외 주식·채권과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서 운용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로, 국민연금공단과도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새롭게 문을 연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전북에 진출한 민간 금융기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

이다.

이에 대해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깊은 신뢰를 쌓아온 글로벌 운용 역량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주에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금융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조배숙 “당뇨병 맞춤형 예방 관리체계 시급”

진료비4조 돌파··4년간23.5%↑
치료중심서예방중심 전환촉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국내 당뇨병 진료환자가 410만 명에 육박하고 연간 진료비가 4조 원을 넘어섰고, 당뇨병성 족부병증으로 인한 절단 수술이 최근 5년간 5,800건을 넘어서는 등 중증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지속적

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2021년 353만 7,601명에서 2025년 409만 9,267명

으로 4년간 15.9% 증가했고, 같은 해 당뇨병 총진료비는 3조 2,390억 원에서 4조 7억 원으로 23.5% 증가했으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2조 2,585억 원에서 2조 7,881억 원으로 5,296억 원 늘었다. 특히 생활습

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는 2025년 372만 8,718명으로 차지했다. 2021년 대비 52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젊은 당뇨병 환자도 늘고 있다. 2025년 40세 미만(0세~39세) 진료 환자는 20만 5,483명으로, 2021년 (18만4,594명)보다 약 2만 명 증가

했다. 2025년 기준 당뇨병 관련 합병증



조배숙 의원

진료환자는 ▲망막병증 41만 8,247명 ▲신경학적 합병증 39만 1,544명 ▲말초순환계 합병증 21만 3,061명 ▲

신장 합병증 18만 4,171명 ▲족부궤양 2만 2,096명에 달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당뇨병성 족부병증 환자에게 시행된 절단 수술은 총 5,858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172건에 달하는 규모다. 2025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관련 유리체

절제술은 3,760건, 안저 광응고술은 3만 9,970건 시행되는 등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데이터터 체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사망자 수가 한 해 평균 10,731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8,961명에서 2025년 11,394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당뇨병 환자와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치료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국가 당뇨병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제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사전에 끊어내는 예방 중심의 국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청년 불편 발굴해 특별법 특례로 푼다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착수
청년 20여명 참여 제도 개선 논의
일자리·주거·교통 등 애로 발굴
현장 의견 특별법 특례화 검토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제도적 불편과 정책 애로를 발굴해 전북특별법 특례로 발전시키는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에 나섰다.

도는 지난 15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청년정책참여단(전북청년허브센터)를 비롯한 도내 청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시각에서 생활·일자리·주거·교육 등 일상 속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해 특례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

장’과 연계해 청년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특례’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운경 전북특별자치도 총괄지원과장이 전북자치도 출범 배경과 추진현황,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특별법과 특례제도의 기본 개념과 역할, 생활 속 불편을 법·제도 개선과제로 구체화해 특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소개했다.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청년들이 생활과 정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전북특별법 특례 또는 제도개선과제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취·창업 기회 확충이 제시됐다.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문화 등 생활 여건 개선, 지역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사진=전북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취업·주거·정착 등 청년 생활 전반의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법 특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온라인 특례발굴실과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화 가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 분야를 시작으로 대학생,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정책 대상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특례’ 발굴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제13대 의정활동 담은 소식지 발간

7~9월 의정활동·조례 17건 수록
생활 밀착 조례·균형발전 과제 설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주요 의정활동을 담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9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제430회·제431회 임시회 주요 활동을 비롯해 5분 발언과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정 소식을 수록했다.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는 총 17건으로, 주요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담아 도민들이 관련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5분 자유발언과 건의·결의문에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3대 메가 프로젝트 반영 촉구 건의’, ‘붕괴 직전 전북 모자의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

시급’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들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소식지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카툰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 균형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소개했다.

포토에세이는 2026~2027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군의 ‘마이산 가을 풍경’을 담았고, 동행 전북 코너에서는 가을에 가기 좋은 ‘전북 미술관’을 소개하며 다양한 입읍거리를 제공했다.

특별기고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지도를 그리기 위한 전북자치도의회의 도전과 과제를 다뤘다.

생활 공감형 조례를 통해 달라지는 일



전북도의회 소식지 제96호

<사진=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상과 현장을 소개하는 기획 코너 ‘조례, 도민을 만나다’에서는 군북부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와 뚝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지원 조례를 소개해 조례가 도민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조은희 간행물편집위원장은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의정활동을 담은 이번 소식지를 통해 도의회의 성장 방향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의회의 활동과 정책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지원 “병원비 환급금 지난해 240억원 소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의 소멸액이 지난해 240억원에 달하고, 소멸금액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소멸 처리액은 2018년 30억원에서 2025년 24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금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지난해 소멸액 240억원 가운데 65세 이상은 166억원으로 69.4%를 차지했다. 75세 이상도 115억원으로 전체의 47.9%에 달했다.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소멸금액은 100만6천원으로 65세 미만



박지원 의원

(60만7천원)의 약 1.7배였다. 소득 하위 50%의 소멸액도 196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올해 9월 9일 기준 1년 이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원이며, 이 중 3개월 이내 소멸 예정액은 6만1,571건, 482억원이다.

박 의원은 “환급금 소멸을 줄이려면 안내문 발송 횟수보다 실제 지급률과 미지급 사유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급동의제와 사전등록 강화 등 취약계층의 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빨리 가는 길보다, 안전한 길이 먼저입니다



전북 취업자 3개월 연속 감소세

제조업·농림어업 고용 ‘동반 추락’ 9월 취업자 전년보다 1만 8천 명 ↓

전북지역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지역 산업의 주요 기반인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근로자는 증가하면서 고용의 양적 위축과 질적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8천 명

(1.8%) 감소했다. 고용률은 63.9%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 감소세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7월 6천 명 감소한 데 이어 8월 1만 1천 명, 9월 1만 8천 명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고용 위축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11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8천 명(14.4%) 감소했다. 농림어업 역시 13만 명으로 1만 8천 명(12.2%)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9천 명(6.1%) 감소하면서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 부진이 나타났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2만 7천 명(6.3%), 건설업은 7천 명(10.8%)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에도 전체 취업자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다.

고용의 안정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47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8천 명(3.6%)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8만 8천 명으로 2만 2천 명(12.9%) 증가했다. 자영업자도 6천 명 줄어 23만 9천 명에 그쳤다.

여성 고용시장도 위축됐다. 여성 취업자는 44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3천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57.1%로 1.7%포인트 하락했다. 남성 고용률 하락 폭인 0.9%포인트보다 컸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실업을 하락에도 고용 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이다. 9월 실업률은 1.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경제활동인구는 2만 1천 명 감소했다. 반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4만 4천 명

으로 2만 4천 명 증가했다.

이는 실업률 하락만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3분기 전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전년 동기 대비 상용근로자는 2만 6천 명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2만 5천 명 증가했다.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전북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를 넘어 산업별 고용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농어민 정책자금, 보증 승인 후에도 대출 중단

미실행 사유 파악 안돼 제도 개선 시급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이 정작 담보와 신용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정책자금을 편성하고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는 데다, 지원이 중단된 이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융자계획액은 9조 6,938억 원이었으나 실제 대출 실행액은 8조3,584억 원에 그쳤다.

계획 대비 1조3,354억 원, 전체의 13.8%가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금 수요 부족과 신용·담보 조건 미충족 등을 미실행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승인을 받고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매년 2천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587건, 2023년 2,572건, 2024년 2,652건, 2025년 2,475건 등 최근 4년간 무려 1만 286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4만1,117건의 보증이 승인됐지만 이 가운데 2,475건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문제는 농신보가 이들 개별 사례의 대출 미실행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민의 담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보증제도가 실제 금융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에서도 비슷

한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해 7,498건, 1조713억 원이 신청됐으나 실제 실행은 7,141건, 1조87억 원에 머물렀다. 357건, 626억 원은 신청취소 또는 부결됐다.

수산 분야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귀어 창업·주택구입자금은 487명, 998억 원 규모가 선정됐지만 해당 연도 신청·실행은 230명, 389억 원에 그쳤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선정 규모 2,323억 원 가운데 973억 원만 해당 연도에 실행됐다.

다만 이들 사업은 선정 후 최대 2년 이내 대출이 가능해 선정액과 실행액의 차이를 모두 지원 탈락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수협은행은 대출 거절과 감액, 철회 사유 및 부결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부터 보증심사, 금융기관 대출 실행까지 단계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렵

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영농자금과 시설투자 부담이 큰 청년·후계농업인에게 정책자금의 실제 집행 여부는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직결되는 문제다. 단순한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자 선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까지 책임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장식 의원은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이 때문에 정책금융이 필요한 농어민이 오히려 담보와 신용 때문에 정책자금에서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예산 편성과 대상자 선정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선정부터 신청, 보증, 심사,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결해 관리하고 탈락·포기·감액 사유까지 통계화하는 정책자금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군산 ‘큰들산 신동진쌀’ 미국 수출

총 28톤 선적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모색

전북농협과 대야농협은 지난 16일 대야농협 미국처리장에서 ‘큰들산 신동진쌀’의 미국 수출을 기념하는 ‘2026년산 신동진쌀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적식에는 대야농협 한정주 조합장, 전북농협 안전우 부분부장, 농협 군산시지부 김범석 지부장,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문춘호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전북 쌀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수출은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고품

질 신동진쌀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미국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 물량은 총 28톤이며 수출업체 회장 문산대표 권중찬을 통해 미국 내 대표 한인마트인 H-마트에 납품될 예정이다.

군산 큰들산 신동진쌀은 쌀알이 크고 밥맛이 좋아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이번 수출로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지 소비자 반응과 판매 추이에 따라 추가 수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은 “국내 쌀 소비촉진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을 병행해 우리 쌀의 소비 기반을 넓히고 산지 농협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전북농협>

한전수 대야농협 조합장은 “우리 쌀의 가치를 해외에서 인정받고 소비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산 쌀이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한농연 전북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 신설하라”

체계적 대응 촉구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제기됐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농업 생산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분산된 행정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한농연 전북)는 성명을 통해 전북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농업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할 독립적인 과(課) 신설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 전북은 “기후위기가 농업의 생

산기반과 농업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와 냉해 등 반복되는 이상기상으로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비 부담과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계·청년농의 영농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시설과 농기계 등에 자금을 투자한 후계·청년농에게 반복되는 재해는 경영 안정은 물론 농업 정착과 성장 자체를 가로막는 중대한 위험이라는 것이다.

한농연 전북은 기후위험을 개별 농가가 감당하도록 방치할 경우 농업 인력 육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농업 기후변화 대응을 개별 사업이나 부서별 업무로 접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상설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을 상시 분석하고 농업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 작목전환, 기후적응 기술 보급, 농기계영양 안정까지 연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과 신설과 함께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전북도와 시군, 농업기술기관,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인의 현장 의견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행정기관 중심의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농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농연 전북은 “조직개편은 농업인이 직면한 위기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전북도는 농업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농정과제로 삼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후계·청년농의 미래를 뒷받침할 전담부서 신설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반복되는 기후재해에 대한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과 적응, 농가경영 안정까지 포괄하는 농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전북도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농업 기후위기 대응 기능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보라미봉사단과 농가 지원

지역사회 상생 실현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 및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는 지난 16일 정읍시 정우면 소재 농가에서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현)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보라미봉사단 10여명과 전북농협 지역본부 및 정읍시지부 직원이 참여해 작두콩밭 잡초 제거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었다.

특히 교정기관의 수감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농업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와 소통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다.

/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뭇 쓰는 농기계, 방치 말고 신청하세요”

정읍시 수거·처리 지원

정읍시는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의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관내 농기계 폐해체재활용업체와 협약을 맺어 폐농기계 수거·처리를 진행한다.

농업인은 수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대금을 해당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고철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방치된 폐농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촌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시, 사회연대경제 한마당 ‘잇다’ 개최

김제시는 지난 16일 지평선문화축제 발전소에서 제1회 김제시 사회연대경제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시민 등에게 사회연대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의 이름은 ‘잇다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시민과 기업, 기업과 기업, 나아가 지역과 가치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참여해 기업별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홍보하고 체험·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회연대경제 한마당이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의 의미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운영

우주 과학 인재 양성 헌츠빌 및 워싱턴 탐방 우주 임무 시뮬레이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 우주 과학 분야를 이끌 글로벌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우주과학 탐방을 추진한다.



전호석 교육감

전북교육청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과 워싱턴 D.C. 일원에서 ‘2026년 나사(NASA)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16명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나사 마셜우주비행센터 공식 방문자센터인 헌츠빌 U.S. 스페이스&로켓센터의 ‘스페이스 아카데미’에 입소해 우주 임무 시뮬레이션과 로봇공학 등 팀별 미션을 수행한다. 이어 워싱턴 D.C.로 이동해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항공우주 기술 발전사와 생물다양성 등

자연과학 전반을 탐구할 예정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우주과학 교육 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하며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미래 이공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전북TP ‘전북과학축전’ 개최

피지컬AI 체험 부스 등 첨단 기술 선보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과학축제 with 전북과학축전’이 18일까지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전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

술을 생활 속 과학과 결합한 전시·체험형 행사로, 지역 학생과 도민의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크게 두 개 구역으로 ‘피지컬AI관’에서는 AI 로봇 초상화, 무술 휴머노이드 로봇, 레고 에듀 AI·SW 체험, 재난·산업 안전 로봇, AI 고소작업 로봇 등 7개 부스를 통해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과학문화관’은 AI 건강 분석기를 활용

한 과학 체험, AI 코딩 ‘비누(VINU)’, 로보마스터 슈팅·레이싱 등 6개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지난 17일에는 전주대 하림미션홀에서 도내 초·중학생 40팀이 참여해 센서와 프로그래밍 기반 자율주행 미션을 겨루는 ‘2026 전북 피지컬 AI 미래 인재 챌린지’도 열렸다. 야외 체험 부스는 전주대 대운동장에서 지난 16일 오후 1~5시, 17일 오전 10

시~오후 5시, 18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운영했다. 유수창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장은 “도민들이 미래 첨단기술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과학의 실용적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지역 과학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프랑스 리옹3대학에 ‘JBNU 국제센터’ 설립

유럽 교육·연구·문화 네트워크 확장

전북대학교가 프랑스 리옹 제3대학에 ‘JBNU 국제센터’를 개소하고 유럽 지역과의 교육·학술 교류 확대에 나섰다. 전북대에 따르면 조하림 국제처장이 지난 12일 프랑스 리옹3대학을 방문해 질 보네(Gilles Bonnet) 총장과 유학생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지 JBNU 국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새로 문을 연 국제센터는 리옹3대학 한국어학과와 협업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학술·문화 교류 거점 역할을 맡는다.



양 대학은 센터 설립을 계기로 학부 교환학생 파견 규모를 늘리고, 리옹3대학 우수 학생들의 전북대 대학원 진학 연계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수진 간 공동 연구와 공동 강의, 국제 세미나를 공동 추진해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리옹3대학 JBNU 국제센터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유럽 현지에 전파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해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문화관광재단, 행안부 장관 표창

익산시 출연기관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책임경영과 지역상생을 위한 경영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실제 재단은 익산시가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며 경영혁신 성과를 입증했다. 2025년 평가에서는 전년

보다 2.55점 상승한 91.73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을 받았고, 2026년 평가에서도 ‘가등급’을 유지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익산시가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익산서동축제 개최 이전을 통해 관람객을 7만 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약 33% 늘렸으며, 민·관·산·학 6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상급기관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외부 자원 확보와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출연기관의 책임경영과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단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에 힘을 계획이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장관 표창은 재단의 경영혁신과 문화관광 분야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단이 익산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만복사지서 평안 기원 행사 열려

남원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만복사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을 나누고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한 야간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고, 유료 워크숍 사전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조기에 알리며 현재 사전 신청을 접수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만복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공동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된 참여형 문화행사다. 행사명인 ‘주야장천’에는 낮과 밤을 이어 각자의 소원을 모으고 모두의 만복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오후 4시부터 문을 여는 주간행사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과 장터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소망 한지 등 만들기 △만복의 얼굴 만들기 △소원 낚시 만들기 등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낮에 직접 만든 소품은 저녁 시간에 길놀이와 탐돌이에 그대로 활용돼, 개인의 소원이 밤에는 모두의 바람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경험을 선사한다. 유료 워크숍으로 진행되는 ‘소망 한지 등 만들기’와 ‘만복의 얼굴 만들기’는 사전 신청 시 현장 참가비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은 두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하는 세트로 신청 가능하며, 현장에서는 단품 선택이 가능하다. 소원 낚시 만들기, 저포놀이, 다도 체험 등은

무료로 운영된다. 오후 6시부터는 풍물 가락과 함께하는 길놀이와 만복사지 일원에서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낮 동안 직접 만든 등과 깃발을 들고 행렬을 이룬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행사장 탐돌이 조형물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동 탐돌이’가 펼쳐진다. 조형물에 연결된 16방색 천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복사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특별한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고 만복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꿈의 스튜디오 ‘부안’ 참여자 모집

과정 중심 시각예술교육

(재)부안군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의 실제 작업실에서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시각예술을 경험하는 2026 꿈의 스튜디오 ‘부안’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의 스튜디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꿈의 예술단의 시각예술 분야 사업으로, 지역 예술가의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율적인 탐색과 표현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부안군문화재단은 올해 꿈의 스튜디오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화·인두화·터프팅·회화 등 4개

분야의 지역 예술가와 함께 각자의 작업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예술가의 작품과 창작 도구 등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소재와 표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예술가의 실제 작업공간에서 다양한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생각과 감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부안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주)온고, 20일까지 한지 활용 기획전시

‘기록의 종이에서, 현대회화의 바탕으로’를 주제로 기록과 공예의 소재로 익숙한 전주 한지를 현대미술의 창작 재료로 새롭게 활용하는 전시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2026 우수기획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주)온고는 지난 9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온고갤러리에서 기획전시 ‘한지: 바탕이 되다展’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김민희, 김소미, 김정심, 김학곤, 명안나, 박상규, 송하진, 안명희, 옥소희, 이광재, 정유리, 조화영, 최윤우, 한오로라, 현동욱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참여 작가들은 서양화와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요철 한지 캔버스 위에 유채, 아크릴, 수묵, 채색 등

의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한지의 발색과 번짐, 질감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한지의 질감은 작품뿐 아니라 전시 공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요철 한지의 입체적인 질감을 드러내는 조명과 갤러리 내 ‘한지 진동판 오디오’를 통해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지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관람객이 요철 한지의 겉을 직접 만져보며 소재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가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자산인 한지를 현대미술의 창작 소재로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온고갤러리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전북도·전주시·익산시

129

외로운 어르신
살펴 드리기

도움이 필요한분
돌보기

어려운 이웃,
상담전화 129

출로게신 어르신과 취약 계층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작은관심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올해 김장은 익산에서” 김장체험 참가자 모집

익산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익산시는 오는 11월 21~22일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K-김장문화축제 익산’의 김장체험 참가자를 이달 19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김장체험은 절임배추와 양념을 받아 참가자가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버무려 가져갈 수 있는 체험과 간편하게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집 규모는 현장 체험 640팀, 꾸러미 수령 240팀 등 총 880팀이다. 김장체험 꾸러미는 절임배추 7kg과 양념 3.5kg 등 총 10.5kg으로 구성되며, 체험비는 꾸러미 당 7만 7,000원이다.

현장 체험은 11월 21일 오후 1시와 3시 30분,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총 4회 진행되며, 회차별 160팀이 참여할 수 있다. 꾸러미 수령은 회차별 60팀씩 11일 21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등 총 4회 운영된다.

어린이 김장체험 참가자도 모집한다. 11월 21일 오후 2시에는 유치원생 40명, 오후 3시에는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어린이들은 절임배추와 양념을 활용해 김치 1kg을 직접 만들어보며 김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익산시농촌활력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센터 누리집, 익산물을 통해 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갈게, 너의 마음에’ 운영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옥봉초등학교 등 관내 4개 교에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서비스인 ‘찾아갈게, 너의 마음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갈게, 너의 마음에’는 지리적·교통적 여건 등으로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상담은 옥봉초등학교를 비롯해 서수초등학교, 새만금초등학교, 나포중학교 등 총 4개교에서 진행됐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6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해석 결과를 함께 시청하며 자신의 심리·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개인 상담도 병행했다.

김진호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거리나 교통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 정읍시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회장 홍성욱)가 5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가며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했다.

지회는 지난 16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관내 86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실천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이번까지 총 5회에 걸쳐 누적 1000만원을 전달했다.

홍성욱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금은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자연 속 힐링의 시간 만끽” 2(題)

군산시, 모녀 당일 여행 운영

군산시가 깊어가는 가을, 모녀가 함께 떠나는 감성 힐링 여행 ‘모녀의 하루 in 군산-갈대힐링 편’을 오는 31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녀의 하루 in 군산-갈대힐링 편’은 지난 6월 원도심 골목을 누빈 ‘레트로 편’에 이어 군산의 가을 자연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코스로 새롭게 꾸며졌다.

여행은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시작된다.

모녀는 추억의 교복을 맞춰 입고 소포م과 함께 스튜디오 촬영을 하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시간을 보낸다.

촬영한 사진은 특별로 인화해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이어지는 코스는 가을빛으로 물든 청암산 갈대밭이

다. 참가자들은 청암산 수변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은빛 갈대밭 사이를 나란히 걸으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여행의 마무리는 ‘모녀의 하루만’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이 장식한다.

참가 신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모녀의 하루 in 군산-갈대힐링 편’ 게시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의 가을 자연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국 러너들, 익산에 모였다

익산시는 지난 17일 서동공원과 용화산, 미륵산, 세계유산 미륵사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익산 트레일 레이스’에 전국 각지에서 283명이 참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더배움협동조합과 익산철인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 등 다양한 지역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익산 트레일레이스는 지난해 문화도시 삼삼오오 ‘시민이 만든 쉼터도시 익산’에서 대상을 받은 시민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문화도시 삼삼오오는 시민이 직접 도시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대회는 17일 오전 8시 서동공원에서 출발했다. 참가자들은 용화산 정상과 아리랑고개, 미륵산성을 거쳐 미륵산 정상에 오른 뒤 세계유산 미륵사지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20km 코스를 달렸다. 누적 상승고도 1,540m에 제한시간 5시간이 주어지는 산악 코스로, 참가자들은 익산의 자연과 백제 역사유산을 따라 달리며 완주에 도전했다.

박성일 익산시 문화유산과장은 “시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전국의 러너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참가자들이 익산의 역사와 자연을 직접 느끼며 각자의 도전을 이어가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역 중심 미래 도시 대전환

광역교통·주거·상업 첨단산단 원스톱 연계

호남의 관문인 익산역을 중심으로 철도 교통과 원도심 상업·주거, 차세대 첨단산업을 하나의 공간 전략으로 아우르는 대규모 미래 성장 청사진이 그려진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익산역 일원을 전북의 핵심 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익산역 중심 복합거점(환승·주거·상업·산업)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용역은 익산역의 뛰어난 광역 철도망을 구심점으로 삼아 그동안 분절돼 추진되던 교통 환승,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조성을 하나의 종합 발전 전략으로 묶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용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미래 100년을 이끌 공간 전략을 구체화한다.

우선 첫 번째 방향은 새만금과 전북 광역권을 잇는 ‘광역교통허브 구축’이다. 익산역은 호남고속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4개 철도망이 교차하는 서남부권의 철도 심장부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4년 1만 8,679명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만 169명으로 매년 50만 명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며 기존 역사의 수용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시는 익산역에 적합한 위치와 규모를 산정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철도와 버스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까지 한 번에 갈아타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 서남부권 최고의 교통 허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미래첨단도시 대전환을 견인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정부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정책과 새만금 산단 대규모 투자,

로봇과 융합된 피지컬 AI 등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은 ‘익산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와 고품격 상업·주거 거점 조성’이다. 과거 변화했으나 쇠퇴를 겪은 중앙동 등 원도심 상권을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권 부활을 이끈다.

특히 첨단 기업과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핵심인 만큼, 익산역의 편리한 광역교통과 주거·문화 인프라를 산업단지와 긴밀히 연계해 제5산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철도와 원도심 상권, 주거와 첨단 일자리가 맞물려 살아 숨 쉬는 미래형 도시 공간을 완성하고, 익산역 중심의 신성장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단풍 구경은 즐겁게, 여행은 안전하게

정읍시, 내장산 손님맞이 최종 점검

정읍시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단풍철 교통·안전·환경정비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본관 2층 단풍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6년 내장산 단풍철 행사차량 확보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시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철원군의회가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한 비교견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중앙동과 송학동, 인화동, 남중동, 금마면, 함열읍 등 6개 도시재생사업지구의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방식과 거점시설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중앙동의 청년창업 활성화와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설명했다.

송학동 푸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금마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상 방문객은 약35만명이다.

이에 시와 관계기관은 연인원 4388명을 투입해 △교통·주차질서 관리 △불법 노점상 및 호객행위 단속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점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 혼잡과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내장산의 아름다운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상인들도 성숙한 행락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주목’

철원군의회 등 벤치마킹 발길 잇따라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운영 사례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 10여 명이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와 거점시설 운영사례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철원군의회가 지역 현안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거점시설 운영과 마을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도 공유했다.

이여진 질의응답에서는 거점시설 운영방식과 주민조직의 자립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박정열 익산시 도시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주도 운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소아진료 영상, 공모전 대상

지역 소아의료서비스 알려

정읍시보건소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알리는 짧은 영상(유튜브 쇼츠) 공모전에서 수상작 7점을 선정했다.

보건소는 지난 8일 심사를 진행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의 소아 진료 체계를 널리 알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순간’을 주제로 소아 진료와 치료 과정,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영상 작품을 모집했다.

대상에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우리동네 88소아센터’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

센터의 운영시간과 진료과정을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해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은 정읍아산병원의 협약을 바탕으로 202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주하며, 외래진료를 제공하고, 어린이전용병동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를 돌본다.

이를 통해 정읍을 비롯한 전북 서남권의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들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 소아의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취약계층 물 이용 위생환경 개선

‘행복가득 수 프로젝트’ 지원

군산시는 지난 16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유역협력단과 주거취약계층의 물 이용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는 물 이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위생 시설을 개선해 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본사 사업비와 영·섬유역협력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80만 원)을 합쳐 총 1,400만 원 규모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내 주거 취약계층 2가구로, 가구별 여건에 맞춘 보수가 진행된다. 경보수 대상 가구에는 싱크대 교체 및 도배, 천장 마감 공사 등 주방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중보수 대상 가구에는 기존의 간이식 세면 공간을 철거하고 변기·욕실·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전면 공사를 진행한다.

한승철 영·섬유역협력단장은 “이번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진=군산시>

사회 취약계층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세상에 행복을 수(水)놓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주거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K-water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군산시에서도 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신흥공업 유아숲, 특별한 체험공간으로

야간 가족 숲체험 운영

익산시는 지난 16일 오후 7시 신흥공업 유아숲체험원에서 야간 숲체험 프로그램을 ‘별빛 쏟아지는 유아숲에서 놀자!’를 시작해 오는 24일과 30일까지 총 3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낮 시간대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문화마을29’ 사업의 일환이다.

문화마을29 참여팀인 ㈜샤드락샤드

레이크 익산시, 국립익산지유야숲과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과 랜턴을 들고 걷는 야간 숲 산책, 싱잉볼 연주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차별 10가족씩 총 30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관심 속에 사전 참가 신청이 모두 마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유아숲체험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지역치안協, 방법·교통안전 안전 검토

정읍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방법시설 확충과 야간 취약지 보안 등 설치 등 지역 안전과 관련한 11건의 안전을 검토했다.

시는 지난 16일 정읍경찰서 내장산출에서 정읍시지역치안협의회 신규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앞서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회안 총11건이 상정됐다. 주요 안건은 소방방역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확충 및 차량번호 판독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 교체 △야간 취약지 발광 다이오드(LED) 보안등 설치 △정읍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이다.

참석 위원들은 각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

전국 최초 기본사회 센터 설치… 공유부 창출 기반 마련

부안군은 전국 최초로 군 행정조직 내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기본사회센터 설치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6일 기획감사담당관 내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맡아 기본사회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한다.

이번 센터 설치는 부서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군정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군민의 소득과 기본서비스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안형 기본사회는 햇빛과 바람, 농업, 관광, 문화 등 지역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첨단산업과 혁신, 문화관광과 복지·생활행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사회센터는 기본사회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진=부안군>

공유부 창출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기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등을 담당한다.

군은 2027년을 부안형 기본사회 시범사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공유부 창출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읍·면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체를 통한 공유부 창출과 군민 소득 향원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군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청년 임대주택과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 통합돌봄, 기본교통 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외형적 성장이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 등 삶의 필수 영역에서 군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의 천혜의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체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교동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연계해 군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기본사회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기본이 튼튼한 신바람 부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 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여비 전액 반납

제2회 추경서 감액 결정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국외출장 관련 여비 8,65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반납 결정은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통해 일제감치 공감대를 형성해 온 사안으로 지난 7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제1회 추경 당시에는 의회 개원 이전에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제2회 추경 일정에 맞추어 최

종 삭감 처리를 매듭지었다.

감액된 예산은 의원국외여비 5,100만원과 수행공무원 등 여비 3,550만원 전액이다.

시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선제적으로 반납함으로써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정자 의장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절실한 엄중한 시기에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예산 절감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뜻을 하나로 모아 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집중

부안군은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돌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의 생활 실태와 주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인한 뒤 공공복지서비스와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거 내·외부에 쓰레기가 쌓여 사고와 화재의 위험이 있던 가정을 방문

한 사례관리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끈질긴 설득 끝에 주거환경개선에 동의할 수 있었으며 민간기관의 협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위 사례는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생활환경과 일상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대상자는 도움을 받는데서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한 집들이 행사까지 이어져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 개최

내년도 사업 등 선정

고창군이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군청 2층 제3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금 2026년 결산 추경 심의(안), 2027년 본예산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안) 및 2027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심의(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주민 제감도와 공공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027년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결산 추경 및 2027년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고창군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내 마음속 고향, 고향’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 담긴 기부인 만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문화·관광·교육 등 고창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개발부담금 납기 사전 알림

필요한 정보 ‘한눈에’

부안군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납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기한이 6개월로 비교적 길어 납부 의무자가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실제 납부 시점을 놓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기한을 사전에 알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안내 내용은 납부기한, 납부금액 확인 방법,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 문의처 등으로 구성해 납부 의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납부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먼저 찾아 개선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11월 30일까지

숯가꾸기사업 대상지 접수

부안군은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숯가꾸기 사업 대상지 신청을 1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숯가꾸기 사업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숲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숲의 밀도와 생육상태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나무를 솎아내거나 가지치기 등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신청된 산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임상의 특성 및 임분의 밀도, 산림의 다기능(목재생산·수원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 여건과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숯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주는 부안군청 산림정원과 산림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식품산업협, 복분자 미숙과

헤어케어 시제품 첫선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자체 R&D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제18회 K-뷰티엑스포 코리아’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고향 특화 자원인 복분자 미숙과 유효성분을 활용한 ‘복분자 미숙과 리포좀 제형 헤어케어 샴푸 및 헤어토닉’ 시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이번 참가는 연구원의 ‘복분자 리포좀 특허 기술(10-2026-0058957)’을 바탕으로, 협업 기업인 ㈜다인플라즈(대표 이재연)와 산업화 결실을 맺은 시제품을 글로벌 바이어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제품은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높이고 두피 전달 효율을 고려한 ‘복분자 미숙과 리포좀 제형’ 기술이 적용된 샴푸와 헤어토닉 2종이다.

현장 B2B 상담과 함께, 향후 4주간 인체 적용시험(써지)는 모발 수 감소, 두피 피지 및 유·수분 균형 개선, 저자극 평가)을 연계해 제품의 과학적 효능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제품은 고향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의 미숙과를 뷰티 소재로 활용해 지역 농산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생기 원장은 “이번 참가는 복분자 미숙과 소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체적용시험 및 후속 지원을 통해 고향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학생들의 꿈에 닿은

지역기업의 따뜻한 나눔

김제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16일 (유)대신신재생산업(대표이사 김동수)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지면에 위치한 대신신재생산업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분야의 지역기업으로, 다문화가정 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곳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온 데 이어, 이번에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정성주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오신 데 이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

전북도 유일 획득

우수 민원행정 실현

고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전북특별자치도 유일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민원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과 안전성, 민원 처리 서비스, 이용자 체험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체험평가 등 단계별 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과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갖춘 기관을 선정한다.

고창군은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복도 민원실 안내 유도선 설치, 청사 광장 민원실 안내 표지(입간판) 설치, 버스승강장 군청 위치 안내, 민원 서식대 높낮이 조절 가능 책상배치, 민원실 업무처리 순서도 부착, 무인민원발급기 도움벨 설치 등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살피며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민원행정 구현에 힘써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은 군민의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

국비 등 총 340억 확보

6년간 53.9km 구간 정비

부안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신규사업에 선정돼 국비 170억원을 포함해 총 3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주산·보안·변산·진서·상서면 일대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급수지역으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53.9km 구간의 노후 상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GIS구축 및 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 개량 등이 시행된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군 상수관망 사업 대상지 유수율을 85%까지 제

고해 매년 약 120만톤의 누수량이 저감되고 약 2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군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삶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수확철 농기계 안전점검 철저

사용 전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 당부

김제시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수확 전 농기계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업기계 사고는 농업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5월과 10월에 집중되며, 유형별로는 끼임사고가 가장 많고, 그 뒤로 전복·전도, 교통사고 순으로 발생한다. 특히, 농업기계 기종에서는 경운기 사고가 가장 많으며, 예취기, 트랙터 순이다.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며, 주요 실천사항으로 농작업 전 농업기계의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등 주요부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농기계 운행 작업 시 무리한 작업활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적정 작업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을 위한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 부착 여부를 꼭 확인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서행해야 한다.

농작업 시에는 농기계 주변에서 함께 작업 하는 주변 안전관리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주변 사람이 농기계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변 사람의 안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을철 수확기에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 전 점검과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올 한 해 흥린 땀방울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산업 키우고 시민과 소통

남원 바이오기업 IR 상담회…투자유치 ‘물꼬’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은 지난 14일 켄싱턴리조트 대연회장에서 지역 바이오기업과 전문 투자자가 직접 만나는 ‘투자 연계 프로그램 기업유치 IR 상담회’(이하 IR 상담회)를 실시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오전에는 산업연구원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지역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및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어진 IR 상담회에는 7명의 전문 투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원을 비롯한 전주, 익산, 구례 등 호남권 바이오기업들이 전문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업성을 점검받고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행사는 투자자와 기업별 1:1 컨설팅으로 시작됐다. 이어 파스타벤처스 임성준

대표가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양충모 남원시장의 축사와 이영철 연구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7개 참여기업이 차례로 IR 피칭에 나서 기술력·시장성·사업성·투자 매력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전문 투자자들은 사전 매칭된 1:1 개별 면담과 기업별 IR 피칭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한편 후속 투자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엔젤투자클럽(회장 황현수)과 소이프트바이옴(대표 윤서연) 간 실질적인 투자자의향서 교환이 진행됐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전문 투자자들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소이프트바이옴(대표 윤서연)이 최우수상을, 에스비씨(대표 안희영)가 우수상을, 더피움(대표 정박음)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남원시, 타운홀미팅 시민 정책토론마당 개최

남원시는 지난 16일 남원 시청 강당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주요 시정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남원시 정책토론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시정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책토론마당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핵심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열린 공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양충모 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PT) 발표자 무대에 올라 남원시의 핵심 성과와 중장기 비전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0일 동안 23개 읍·면·동 소통간담회와 현장 점검, 8년 숙원인 국립의학전문화대학원 남원 설립 확정, 1,08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등 민생·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를 제시하

고 향후 ‘5대 시정목표+50개 공약’을 바탕으로 에코에너지 스마트도시 복합단지 조성, 시민동행 플랫폼 도입, 한파우 예술특화지구, AI·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약속했다.

이어 ‘만인공영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시민의 상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시민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정 발전 방향과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한 다채롭고 날카로운 질문과 제안들이 이어졌다.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방식 제안 △교통약자 및 고령층을 위한 교통편 확충 방안 △태양광 이격거리 조정 등 지역 상황에 맞춘 과감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남원형 청년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며 시장과 열린 토론을 벌였다.

/남원=정하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순창장류축제 찾아 현장 소통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5일 ‘제21회 순창장류축제’가 열리고 있는 순창군 축제장을 찾았다. 이날 김 대표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축제장 주요 부스를 둘러보고 축제장 내 먹거리 장터를 방문해 주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즐기 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하반기 재개

이벤트형 6화·실제 혼례 4회 일정 광한루원 오작교 거쳐 예루원 예식

남원시가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을 사로잡는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의 하반기 운영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의 대표 관광 지인 광한루원 일원과 예루원 마당에서 진행되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매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혼례식은 광한루원 정문에서 신명나는 ‘터울림’ 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시작, 신랑·신부와 하객들이 사랑의 상징인 오작교 다리를 건너 북문과 관서당을 거쳐 아늑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예루원 마당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혼례 예식이 진행된다.

전통혼례체험이 큰 인기를 끌며 상반기에 늘어난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하반기에는 총 10회의 일정을 마련했다. 이중 6회는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이벤트형으로, 4회는 실제 부부의 연을 맺는 실제 전통혼례로 특별하게 꾸며진다.

/남원=정하복 기자



특히 하반기 첫 전통혼례체험 예식은 흥부제 기간인 10월 9일에 화려한 막을 시작으로 11월 말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전통문화 볼거리와 문화향유의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외에서 진행되는 전통혼례의 특성을 고려해 예루원광장에 햇빛가림막을 설치하여 혼례체험 참가자들이 햇빛노출에 따른 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에서 혼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통혼례체험은 남원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라며 “가을날 광한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귀뚜라미문화재단, 완주군에 장학금 1억원 전달

중·고·대학생 104명 장학금 지원 41년간 전국 7만여명 장학생 배출

완주군이 지난 16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학생 104명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이 완주군 인재들의 성장을 돕고자 마련한 이번 장학금은 중학생 37명(각 50만 원), 고등학생 38명(각 100만 원), 대학생 29명(각 150

만 원) 등 총 104명에게 돌아갔다.

수여식에는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건네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귀뚜라미보일러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털어 1985년 세운 재단으로, 지난 41년간 전국 7만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 등 꾸준한 공익활동을 펼쳐왔으며, 귀

뚜라미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누적 사회 환원 규모는 650억여 원에 이른다

최진민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수확철 맞아 콩 선별장 2개월간 무료 운영

선별기 5대 설치·하루 12톤 처리 농업기술센터 전화사전예약필수

순창군이 본격적인 가을 콩 수확철을 맞아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콩 선별장을 운영한다.

군은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구림면 삭골길 37에 위치한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콩 선별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콩 선별장 운영은 수확한 콩의

선별 작업에 따른 농업인의 노동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순창군의 대표 산업인 장류 산업의 원료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콩 선별장에는 총 5대의 선별기가 설치돼 있으며, 하루 최대 12톤(12,000kg)의 콩을 처리할 수 있어 수확철 농가의 원활한 콩 선별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콩 선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확 후 선별 작업에 소요되는 시

간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선별기기 점검 및 정비가 진행된다.

선별장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에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지정된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별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350여명 화합

희생정신 기리고 화합·소통 다져 보훈예우 강화·복지정책 확대 추진

완주군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삼례문화체육센터에서 보훈가족과 내외 귀빈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완주군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유희빈)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연을 함께 즐기고 오찬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완주군>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과 완주의 발전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애국정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국가유공자 여러분이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으며 보훈가족 모두가 자긍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빈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보훈단체 간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중과 감사의 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생물테러 대비 실전 대응 합동훈련

군·보건소·경찰·소방 등 참여 반복 훈련으로 현장 대응력 제고

완주군이 지난 15일 보건소 3층 강당에서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역량을 다지는 실전 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에는 완주군보건소를 비롯해 완주군 재난안전과,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해 합동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다.

훈련은 이론 교육과 실습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사전 교육에서는 국가 테러 대응체계의 이해를 시작으로 생물테러 발생 시 행동 요령과 기관 간 공조 방안을 살피고 시정 각 자료를 통해 필수 대응 절차를 숙지했다.

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과정별 15명씩 총 45명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수감을 희망하는 순창군민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정해진 선별 순위에 따라 교육생을 선정하며,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과정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청년맥주축제 5천명 운집 지역청년 주도 기획·운영 눈길

완주군이 지난 16일 완주군청 대형주차장에서 연 2026년 완주청년맥주축제 ‘청춘의 향해’에 군민과 나들이객 5,000여 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올해 축제는 하이트진로 등 지역 기업의 후원과 청년들의 주도적인 기획·운영이 어우러져 청년 특유의 열정과 참신한 감각을 오롯이 담아냈다.

축제장에는 해적 분장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향해 분위기를 살린 즉석 사진 부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예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특히 추첨을 통해 소금(반 돈)을 전하는 감작 행사와 힌트를 조합해 숨은 인물을 찾는 ‘현상수배법을 찾아라’ 놀이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톨렛 돌리기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잇따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풍성한 먹거리 장터에서는 시원한 맥주와 어울리는 다채로운 안주를 선보여 미식의 즐거움을 더했다. 무대에서는 가수 자주의 축하 무대와 신나는 전자음악(EDM) 잔치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참신한 기획을 바탕으로 공연·체험·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청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일상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관내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로,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품목은 올해(2026년) 구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제품인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전국) 3종이다. 지원 금액은 19세 미만의 경우 본인부담금(10%)의 90%(최대 100만 원), 19세 이상은 본인부담금(30%) 중 20%(최대 1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행복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 콘서트 성료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지난 15일 ‘행복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 콘서트’가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완주산업단지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 인근 주민들이 일상에 벗어나 함께 공연을 즐기며 활력을 되찾고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현장에는 주민과 근로자 등 1,000여 명이 찾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다채롭게 펼쳐졌다. 1부에서는 현대자동차 동호회의 색소폰 연주를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무대에 올라 솜씨를 선보였다.

이어진 2부 초청 가수 공연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미스트롯’과 ‘현악가왕’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가수 빈에서가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며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무대와 따뜻한 지유의 시간을 선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살기 좋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석동마을 산촌마당 캠프 성료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일~4일과 9일~10일 총 2회에 걸쳐 부안을 석동마을에서 '2026년 산촌마당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석동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농촌 공동체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총 8가족(28명)이 참여하여 마을 탐방과 체험을 경험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시간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마을이 가진 경관과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보며 석동마을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다. 참가 가족들은 캠프아이어에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 마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번 캠프는 석동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방문객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건강동행대학 마음반
오카리나 공연 선보여

김제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제2기 건강동행대학 동아리반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건강동행대학 동아리반 중 하나인 마음반은 지난 16일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에서 열린 '김제시 사회경제연대한마당'에 참여해 오카리나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 마음반 회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오카리나 연주 실력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배움의 성취감을 나누고 지역사회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건강동행대학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과 취미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제46회 가람시조문학상 임성규 시인 선정

임성규 시인 '마한의 울음'
중후하고 선명한 역사성

익산시와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제46회 가람시조문학상'에 임성규 시인(사진)의 '마한의 울음'이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18회 가람시조문학상'에 임성규 시인(사진)의 '행복 레시피'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오전 가람문학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임성규 시인의 '마한의 울음'은 마한의 역사를 배경으로 전쟁과 상실의 아픔을 깊이 있게 형상화



한 작품이다. 심사위원단은 "중후하고 선명한 역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흠어진 역사의 흔적을 보듬고 시대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승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작품 속 '크나큰 핏빛 울음'이 과거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전쟁과 기후 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역사적 의미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고 불행한 시대에 서정의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임성규 시인은 1999년 '금호문학' 시조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조집 '배집', '나무를 쓰다', '바늘이 쏟아진다' 등을 펴냈다.

2023년 제19회 오늘의시조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출판사 다인숲(아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와 광

주문학관, 땅끝문학관 등에서 글쓰기와 창작 지도를 통해 시조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발랄한 바람소리'를 받아들이고 '남몰래 웃음 한 꼬집'을 더하는 표현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 시작 재미와 희망을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시조문학의 발전과 새로운 작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삼봉지구 국공립어린이집 5곳, 나눔 바자회

어린이나눔 가치 채득

완주군 삼봉지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5곳(중흥바른·나래푸르지오·우미키즈·미래나무·삼봉어린이집)이 지난 15일 삼봉 중앙로 공원에서 영유아와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오색빛깔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어린이들이 물건의 재사용을 경험하며 자원 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체득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화합의 장을 펼쳐졌다.

행사장에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먹거리 장터와 체험 공간, 놀이 구역, 물품 판매 공간 등을 다채롭게 꾸며 활기를 더했다.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은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돕는 후원금으로 전달해,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아우르는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망성면에 찾아온 대학생들…활력 선물

익산시 망성면을 찾은 전주기전대학 학생들이 재능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했다.

망성면은 전주기전대학이 지난 16일 하발마을과 어남마을에서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이 지원하는 '농촌 재능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생활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은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허브 체험, 건강 도시락 나눔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주기전대학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대학의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뜻깊은 재능나눔"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 증진과 대학생·지역 주민 간 소통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부안면 전찬기씨, 쌀 1720kg 기탁

고창군 부안면 전찬기(안현마을)씨가 작년에 올해도 부안면 주민행복센터에 수확한 쌀 1000kg과 도정백미 720kg(20kg들이 36포대) 등 총 1720kg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쌀은 부안면 36개 마을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찬기 씨는 "정성껏 수확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전기홍 부안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찬기씨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바다 나들이

완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장애인분과(분과장 유재현)가 최근 군산시 선유도 일원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인 등 75명이 함께한 '2026년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평소 바깥 활동이나 문화 체험을 누리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다채로운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유대감을 쌓도록 돕는 자리로 꾸며졌다.

'푸른 바다, 함께하는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나들이에는 관내 10개 장애인 생활·이용시설의 장애인과 인솔자 등이 동행했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유람선에 올라 선유도의 수려한 풍광을 감상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일상의 답답함을 털어내는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유재현 희망장애인분과장은 "이번 어울림 한마당이 참여자들에게 일상의 활력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하고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짱이봉사단'
목재 공예품 어르신께 전달

남원시청소년수련관(관장 류진호) 짱이봉사단은 지난 16일, 직접 만든 목재 공예품(기린타월 거치대) 20개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짱이봉사단'은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로,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관내 아동, 청소년, 소외계층 등 다양한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2025년 쿠키·부채 나눔 활동에 이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물품으로 이웃과 온정을 나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一事一言〉



곁에 남는 사람

곽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사람은 평생 수많은 얼굴과 마주친다. 같은 교실을 쓰던 동창, 한 사무실에서 일한 동료, 여행길에 잠깐 말을 섞은 이, 화면 너머로 ‘종아요’를 주고받는 지인들이 있다. 헤아려 보면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잠들기 전 연락처를 훑어보면 요즘 실제로 소식을 나누는 이름은 몇 개뿐이다. 그마저 하나도 없는 때가 있지만, 드문 일은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 관계에도 손질이 필요해진다. 이십 대에는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든든하다. 부르는 자리마다 나가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어울린다. 사는 일이 무거워지고 하루가 아까워지면 만날 사람을 고르게 된다. 돌아오는 길이 무거운 만남, 할 말을 찾느라 애쓰는 자리, 썸이 먼저 오가는 약속부터 줄어든다.

처음엔 허전하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이름 앞에서 내가 먼저 떨어진 건 아닌지 마음이 쓰인다. 하지만 정원은 가지를 쳐서 나무를 살린다. 웃자란 가지를 잘라 내야 남은 가지가 굵어진다. 사람 사이도 다르지 않다.

아껴야 할 사람은 지금 내 곁에서 웃음과 위안을 건네는 사람이다. 예전에 아무

리 각별했어도 지금 서로의 하루에 닿지 않는다면 좋은 기억으로 접어 두면 된다. 지나간 사람을 붙들려 애쓰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소홀해진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지금 마음이 닿지 않는다면 애써 이어 갈 필요가 없다. 관계를 지탱하는 건 앞날의 계산이 아니라 오늘의 체온이다.

길게 가는 사이는 사는 속도가 비슷한 사이다. 형편이 닮았고, 모가 나지 않았고,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말을 주고받으면 곁이 맞고, 한동안 말이 없어도 편한 사람. 내 기쁜 일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내 실패를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 버거운 하루를 견디면서도 독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함께 걸을 사람이 다.

가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헤어져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운가. 그 사람 앞에서 단어를 가려 쓰느라 피곤하지 않은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산이 많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움츠려든다면 곁에 둘 이유가 없다. 좋은 관계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주저앉히지 않는다.

찾잔이 다 식도록 마주 앉아 별말 없이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사람. 몇 달 만에 걸려 온 전화도 어제 본 듯 받아 주는 사람.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사정을 캐묻지 않고 곁에 앉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덜 외롭다. 한 사람의 생은 손뼉을 만한 몇몇과의 진실한 관계로 채워진다. 관계의 값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

떠나보낼 사람을 떠나보냈다면, 남은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어느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받기만 하는 사이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 역시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귀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만큼 누군가의 귀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오늘 내 안부를 챙긴 사람, 티 내지 않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지금 가장 귀한 사람이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짧은 안부 한 줄을 먼저 건네면 된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마음 맞는 한 사람이면 넉넉하다.

ㅣ 독자투고 ㅣ

가을 행락철·농번기, 서로 배려하는 안전운전이 필수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이다. 산과 들에 오색 단풍이 물들며 나들이를 떠나는 행락객들의 차량과,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농기계가 도로 위로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매년 이맘때면 급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과 노파심을 느끼게 된다.

행락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가을철은 도로 위 위험 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우선, 장거리 운전과 큰 일교차로 인한 졸음운전이다. 단풍 구경을 위한 단체 이동 차량이나 장거리 나들이객이 늘어나면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졸음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하

는 것과 같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운전 중 틈틈이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피로감이 느껴지면 지체 없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어가야 한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 역시 절대 금물이다.

또한 농촌 지역 도로에서의 농기계 교통사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제동장치나 안전장비가 취약하다. 특히 가을철에는 해가 짧아져 초저녁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추돌 사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다. 더욱이 농기계 탑승자는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가벼운 접촉 사고조차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농업인 모두의 안전의식이 절실하다. 농촌 지역의 국도나 지방도를 통행하는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농기계나 어르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

각으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전방주시 태만을 경계해야 한다. 농업인들 역시 늦은 시간 농기계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기계 후면에 야광 반사지나 방향 지시등을 부착하여 야간에도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에서도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농기계 반사지 부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과 예방 활동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교통안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과 아름다운 가을 나들이의 추억이 끄박한 비극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과 ‘교통법규 준수’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서준

전북도 조직개편, 자리 만들기 의혹부터 해소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특정한 내정설이 불거졌다. 신설되는 AI 홍보국의 국장 자리에 도지사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거론되면서 조직개편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을 해소할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북도 본청은 15실국에서 16실국으로, 69과에서 75과로, 284팀에서 314팀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무원 정원도 162명 늘어난다. 물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는 만큼 행정 효율성과 재정 부담, 도민이 체감할 성과에 대한 검증도 엄격해야 한다.

특히 AI홍보국 신설은 그 필요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존 대변인실과 홍보조직이 있는데도 별도의 국장급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존 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업무가 있는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 기능이 독립적인 국 단위 조직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맞

춰 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조직 신설의 당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특정인의 내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신설 국장직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전북도는 인사 절차와 자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 행정조직은 필요한 업무에 맞춰 설계하고 그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순서다.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자리를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개편이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 신설 조직의 기능과 기존 부서와의 차별성, 추가 인력과 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조직개편은 도지사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수단이지 아니라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북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의혹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근거로 해소하는 것이다.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인지 그 답은 전북도가 내놓아야 한다.

▲오늘의시

그때 / 김 용 택

허전하고 우울할 때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어딘가 달려가 닿고 싶을 때

파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동동 떠가면

더욱더 저녁노을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둥근 달을 바라볼 때

무심히 앞산을 바라볼 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 그리움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까.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자신의 모교인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로’에 ‘섬진강 1’ 외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시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로운 도약, 전북과 함께 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전북의 참 목소리, 정직한 언론

전북의 꿈과 희망!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times.co.kr>

구독, 광고문의 :063)282-9600~3

새만금 수변도시, 김제의 미래를 품다

김제시가 새만금 첫 정주형 도시로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일정에 맞춰 주요 기반시설과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살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 구상은 지난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 '창조적 녹색 수변도시 구현'이 개발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2019년 사업시행자 지정 뒤 착공해 2023년 6월 매립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공구별 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며 1단계 토지분양을 마무리했으며 2단계 토지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랜 구상을 거쳐 실제 도시조성 단계에 들어선 수변도시는 물과 녹지를 중심으로 AI 등 첨단기술과 친환경에너지, 스마트 교통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로서 새만금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자족형 신도시'이다.

시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가 김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편집자주)

2조 원 규모 도시 조성...2단계 토지분양 추진 현대차 AI 수소 시티 구상...미래 성장동력 기대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구체화...김제 미래 성장의 주춧돌
새만금 수변도시는 사업기간과 사업비,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수변도시 조성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는 통합개발계획을 2020년에 수립했으며 최근에는 새만금 입주기업 증가와 신항만 개항 예정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3차 통합개발계획이 추가로 변경됐다.

현재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2조 원 규모이며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계획돼 있으며, 약 190만평 규모의 부지를 인구와 산업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변도시 첫걸음을 알리는 1단계 토지분양을 시작하여 단독주택용지 67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가 공고 개시 31일 만에 모두 계약이 완료되어 수변도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가치를 입증했다.

2단계 토지분양은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며,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5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족도시로서 교통·에너지·환경·재난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운영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며, 교육·의료·문화·상업·관광 등 정주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향후 주민 입주에 따른 행정수

요에 대비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소방서, 파출소 등 필수 공공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와 김제시 제2청사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변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정주도시로 성장하고 원도심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돼 지역경제활성화 등 수변도시 조성에 따른 효과가 김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필요한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수변도시의 새로운 성장축

현대차그룹 대규모 새만금 투자계획에 AI 수소 시티 구상이 포함되면서 수변도시의 미래에 새로운 동력이 더해졌다. 주거와 공공서비스 중심 정주 기능에 AI와 수소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을 중심으로 9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4천억 원 규모의 AI 수소 시티는 수변도시에 구현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현대차가 제시한 AI 수소 시티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인공지능 기술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교통·물류·안전 분야에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일명 피지컬AI)이다.

구체적인 사업 부지와 단계별 투자계획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AI 수소 시티 조성은 수변도시에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을 접목하는 계기가 돼 도시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변도시 발전 가능성...인접 신항만과의 연계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새로운 정주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부의 기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산업·교통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접한 새만금 신항은 수변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핵심 시설로 향후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와 산업 기능이 확대되면 배후지역의 주거와 생활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변도시와 신항은 서로 인접해 있고 도로망을 통해 직접 이어지는 만큼 향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계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적·기능적 연계가 행정적으로도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관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변도시와 신

항의 상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김제시는 수변도시가 2025년 4월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만큼 현재 관할 논의가 진행 중인 신항 역시 두 지역의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관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변도시와 신항의 연계는 두 지역의 상호 발전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의 균형 있는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의 미래 성장축을 새만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현대차 투자 등 새만금의 미래를 바꿀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변도시는 이제 도시 조성이 시작된 단계인 만큼 앞으로의 개발 상황과 변화하는 여건을 잘 살펴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변도시가 김제의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